

'짜증 스팸' 자꾸 오는 이유 있었네

통신업체들 차단 요청 받고도 서비스... 방통위 시정명령

"○○인데요. 특산품 구입하세요." "당첨되었습니다. 세금만 내시면 ○○○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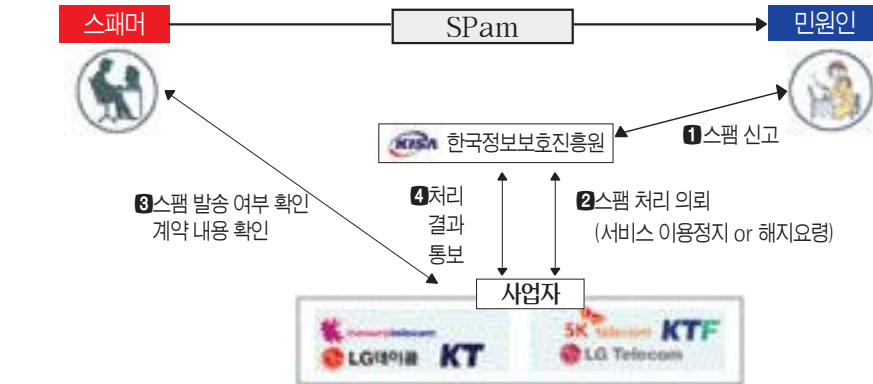
금융 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이나 상품 구입 등을 권유하는 짜증나는 스팸전화가 줄지 않고 계속 걸려오는 이유가 있었다. 통신업체들이 불법 스팸전화를 거는 업체의 전화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채 계속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또 불법 스팸전화를 걸다 적발돼 전화를 해지돼도 바로 전화를 다시 놓고 버젓이 불법

스팸전화를 걸 수 있도록 재가입을 허용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유선전화 3사가 불법 스팸전화를 제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를 적발,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부터 불법 스팸전화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전화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해지를 미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는 18건, SK브로드밴드는 22건, LG데이콤은 412건이나 불법 스팸전화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스팸전화를 전송했다가 적발돼 전화서비스가 해지된 업체는 1년 이내에 재가

입을 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KT는 3개 법인 157회선, SK브로드밴드는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해 재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오지 마을에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KT전남본부 11월까지 구축

전남지역 산간이나 섬 등 오지마을에도 올해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돼 IPTV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된다.

28일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까지 완도 보길면 보옥마을, 진도 초도면 서거차마을, 광양 옥곡면 백안마을 등 전남지역 10~20가구 규모 226개 오지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KT전남본부는 지난 2006년 3월 전남도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 동안 140억원(KT 50%, 국비 25%, 지자체 25%)을 들여 오지마을 1천516곳에 초고속인터넷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게 된다.

사업 1차 연도인 2006년 528개 마을 1만2천462가구, 2차 연도인 2007년 762개 마을 1만1천523가구 등 총 1천29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됐고, 이년부터는 완도 보길면 보옥마을 등 나머지 226곳에 구축 작업이 들어갔다.

KT전남본부는 이들 나머지 마을도 특별한 장애가 없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들 마을의 청정 특산품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판매는 물론 메가TV 서비스로 난시청 해소, 인터넷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와 정보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보 TIP

정부조달 무선인식 전면 적용

지식경제부는 조달청과 무선인식(RFID)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국가 보유물품 관리와 정부조달 분야에 RFID를 전면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2010년까지 RFID 태그는 국가 보유물품에 대해 870만개, 신규 도입 물품에 매년 240만개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1만개 이상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RFID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메인 등록, 실명 사용해야

앞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도메인이름을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한국방송통신연출

방송, 정보통신(IT), 문화콘텐츠 분야의 종견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연합회(KBCC)'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연합회는 방송통신 융합과 디지털화, 상호 연동 등 세계적 추세에 따른 기술교류, 연구분석,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대회장에는 허분행 안양대 산업협력단장을 추대했다.

'옥션' 삼킨 美 이베이 'G마켓'도

<국내 2위 업체>

<국내 1위 업체>

오픈마켓 시장 87% 점령...공정위 조건부 승인에 업체선 "이중 잣대" 반발

국내 오픈마켓(온라인 장터) 시장이 '미국산 공룡'에 점령당하게 됐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가 국내 오픈마켓 2위 업체인 '옥션'을 인수한데 이어 1위 업체 'G마켓'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옥션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미국산 초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출현하게 됐다.

◇G마켓+옥션, 이베이 오픈마켓 천하통일 = 공정위는 최근 G마켓과 옥션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앞으로 3년간 쇼핑물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인상 금지,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상응 억제 등을 들었다. 또 중소기업 판매자 보호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베이가 최대주주인 옥션은 지난해 수수료 매출액 1천824억원, 순이익 10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은 거래액 3조2천500억원, 수수료 2천229억원, 순이익 333억원을 올렸다. 오픈마켓 시장이 6조5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양사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은 87.2%에 해당한다. 현대백화점을 능가하는 온라인 유통공룡이 탄생하는 셈이다.

옥션의 지분 99.9% 보유한 이베이는 인터넷 파크가 가지고 있는 G마켓 지분 36.34%(인터넷 파크 29.14%, 이기형 대표 7.2%) 전량을 인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픈마켓 유통시장이 G마켓과 옥션



의 경쟁 구도에서 G마켓+옥션의 독주체제로 탈바꿈할 공산이 커졌다. 더욱이 오픈마켓 시장은 최근 출시표를 던진 SK텔레콤의 '11번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레이스 경쟁에 나설 대항마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통전문가들은 이베이의 G마켓 인수는 사실상 오픈마켓의 천하통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정위 이중잣대 반발 = 공정위가 인터넷 시장 기준과 관련,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에 적용하는 잣대가 서로 달라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G마켓과 2위 업체 옥션이 결합한 오픈마켓 '공룡'의 탄생이 가시화되면서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

업자의 출현이 가능하다"며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인터넷 쇼핑 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로 낮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옥션과 G마켓 양강 구도가 정립된 이래 CJ의 엠플과 GS의 GS스토어 등 대기업 계열사 역시 번번이 고매를 드는 등 시장이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정위의 경쟁 가능성에 대한 '느슨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특히 인터넷 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터넷 사업 특성상 시장 언제든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출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공정위는 지난 5월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인터넷 사업은 솔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 되기 쉽고,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유인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인터넷 사업에 대한 성격 규정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결과적으로 해외업체의 국내 기업 인수를 위한 길을 열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S 사이언스 science

8~9살엔 '칭찬' 12살 후엔 '꾸중' 뇌 능력 좋아진다

연령별 뇌 활성화 조사

초등학교 2~3학년에는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칭찬'에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반면 5~6학년 이후가 되면 '꾸중'에 더 활발히 반응함으로써 연령에 따라 학습이 다르게 이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발달 심리학자인 에블린 크론 박사 팀은 26일 학술지 '신경과학 저널(Journal of Neuroscience)'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칭찬과 꾸중을 들었을 때 뇌 활성 정도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장치(fMRI)로 관찰한 결과 연령대별로 특정 영역의 활성화도가 크게 달랐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8살 어린이들은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주로 학습을 하는 반면 12살 이상이 되면 부정적 피드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그러나 8살과 12살 이후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뇌 발달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아마도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원역극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트럭 (18세)	최고급관
2관	멋진하루 (12세)	
3관	맘마미아 (12세)	
4관	신기전 (15세)	
5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6관	외톨이 (15세)/인블름 (18세)	
7관	올학교 이티 (12세)/20세기소년 (12세)	
8관	황시 (12세)/미러 (18세)	
9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신기전 (15세)	
2관	미러 (18세)	
3관	올학교 이티 (15세)	
4관	방콕 데인저러스(15세)/외톨이(15세)	
5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6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7관	스타워즈(전체)/맘마미아(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주차장 300대 • **요금** 3,000원

황포시영 영화시영 • 예매: www.joycbs.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트럭 (18세)	
2관	방콕 데인저러스(15세)/영화는 영화다(18세)	
3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4관	올학교 이티 (15세)/황시 (12세)	
5관	맘마미아 (12세)	
6관	신기전 (15세)/외톨이 (15세)	
7관	맘마미아 (12세)/미러 (18세)	
8관	멋진하루 (12세)	
9관	신기전 (15세)	

• 호년 최대 주차장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스점 (10개관) **관람료** 3,000원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동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맘마미아 (12세)	
2관	신기전 (15세)	
3관	트럭 (18세)	
4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5관	미러 (18세)/외톨이 (15세)	
6관	멋진하루 (12세)	
7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OK 카시백 카드 할인 혜택
• 씨너스네 새우니 (오전8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려시영 고래집중 • www.hamcinema.co.kr / 1588-8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박스** ☎ 267-7777

1관	지구(전체)/방콕 데인저러스 (15세)	
2관	올학교 이티 (15세)	
3관	황시 (12세)/미러 (18세)	
4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5관	멋진하루 (12세)	
6관	트럭 (18세)	
7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8관	맘마미아 (12세)	
9관	신기전 (15세)	
10관	신기전 (15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메일 실사
• 이동통신사 & OK 카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령점 288-5757 • 하미 북령점 262-0825
• 하미 골프점 251-5060 • 하미 남구점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dcinema.co.kr

제일 시네마

충정로 37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2관	신기전 (15세)	
3관	멋진하루 (12세)	
4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5관	맘마미아 (12세)	
6관	올학교 이티 (15세)/미러 (18세)	

• 무료주차 3시간 (평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